

보조사상연구원은 5월 2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보조전서' 역주와 보조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50차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년 동안 진행되는 '보조전서' 역주 작업의 중간 결산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역주 작업이 지늘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지늘의 화엄사상 이해' 재조명 돼야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전서 역주' 중간결산 학술발표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보조전서' 역주 작업을 하고 있는 보조사상연구원은 5월 24일 중간보고를 겸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87년 발족한 보조사상연구원이 보조지늘(1158~1210)의 저술과 비문을 한데 모아 1989년 간행한 <보조전서>는 번역하면 원고지 13,0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 아직도 한글 번역과 주석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보조전서>의 60%에 해당하는 <화엄론점요>는 국내에 한글 번역본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실장 인경 스님은 "보조의 저술은 다른 고전적인 원전들과 마찬가지로 인용문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보조 스님이 자신의 저술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전을 밝혀내 주석하는 것은 지늘 사상의 형성과 그 독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

준점이 될 것이다"고 이번 역주 작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표적 예가 화엄 사상에 대한 입장이다. 지늘은 이통현의 화엄사상에 입각해 정통 화엄을 대변하는 법장(法藏)과 정관(澄觀)의 화엄사상을 비판했다는 것이 기존 학계의 대체적인 이해. 그러나 이날 '보조의 화엄교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을 발표한 인경 스님은 지늘이 <원

장의 성기설과 연기설을 서로 혼란되게 이해한 당시의 잘못된 해석"이라며 "지늘이 <원등성불론>에서 법장과 정관의 정통 화엄사상을 직접 비판했다는 기존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에는 <화엄론점요>의 번역과 주석 작업이 주 테마. "화엄사상이 어떻게 수용됐으며 보조

"이통현 입각 법장·정관 비판" 잘못된 견해 고려 불교계 아류적 화엄사상 겨냥한 것

등성불론>에서 인용한 원전의 고증을 통해 "지늘이 비판한 화엄사상은 법장이나 정관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고려 불교계에 유포되고 있던 아류(亞流)적인 화엄사상의 이해"라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인경 스님은 "문헌적 고증의 결과 지늘이 비판한 것은 연기문(緣起門)을 끌어와 성기문(性起門)을 설명하는 등 법

지늘의 선사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인경 스님의 설명이다.

인경 스님과 함께 역주 작업을 하고 있는 김방용씨는 "한글세대인 후학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번역본을 제시함으로써 보조학을 제반 학문에 응용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pia.com

원효가 '기신론소'에 주석한 수행법 천태의 '차제선문'서 인용한 것

최기표 씨, '소지관' 통설 오류 밝혀내

원효(617~686) 스님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인 <대승기신론소>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밝힌 '수행신심분'이 교리를 설명한 '해석분'과 함께 본론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천태의 지관론이 인용돼 있어 원효 사상에 미친 천태 교학의 영향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일본 천태학의 권위자 세기구치 신다이가 1974년 발행된 <천태소지관>의 서문에서 밝힌 이후 '수행신심분'에 인용된 천태 지관론은 <수습지관좌선법요(소지관으로 약칭)>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그런데 30여 년 동안 이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온 통설의 오류를 국내 한 소장학자가 밝혀내 관심을 끌고 있다.

5월 24일 한국불교학회(회장 권기중)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기표(동국대 강사)씨는 "대승기신론" 가운데 실현에

관한 내용인 '수행신심분'에 대해 원효가 '기신론소'에서 주석한 내용은 상당한 분량이 천태(538~597)의 <차제선문>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승기신론소>의 '수행신심분'과 <소지관>, <차제선문>의 해당 구절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한 최 씨는 "소지관"에서 인용한 구절이 두세 군데 나오지만 이는 <차제선문>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어느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행신심분' 주석의 3분의 1 가량은 <차제선문>에서 인용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원효 이후 2~300년 동안 문헌에 인용된 게 없어 천태 교학의 국내 전래시기가 불분명했다"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져 온 <차제선문>이 원효 저술에 인용됐다는 것은 천태 교학이 7세기 무렵 전래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익산 출토 국보 '금제 금강경판' 고려 아닌 백제 무왕때 제작됐다"

서지학자 송일기 교수 주장

국보 123호 순금금강경판(純金金剛經板)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 때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학자인 송일기 교수(전남대 문헌정보학과)는 5월 23일 열린 원광대 부설 마한백제연구소(소장 김삼환)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금제 금강경판의 형태적 특징과 운문현상(원문에 첨가된 글자나 문장의 철삭 정도)을 검토한 결과, 구마라집이 402~412년 번역한 한역 <금강경>이

무녕왕(재위 501~523)대에 백제에 들어왔으며 이를 무왕 대에 금중이에 사경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1965년 익산 왕궁리5층석탑(국보 289호) 해체복원 때 발견된 금제 금강경판(사본)은 그동안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금강경판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을 얇게 펼쳐 만든 금중이에 의해 각필(대나무를 깎아 만든 뾰족한 펜로 눌러 쓴 사경)이라는 주장도 정밀하게 조각된 나무활자로 찍어서 만든 것이라는 기존 학설을 뒤엎은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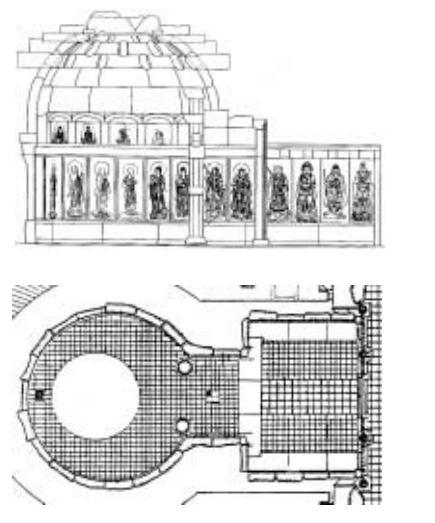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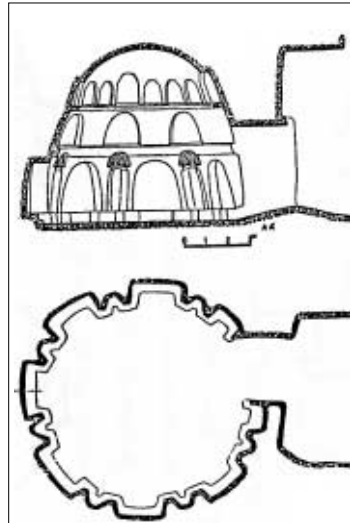


절(8)

석굴암의 뿌리

석굴암은 신라건축의 정화이자 신라조각의 절정이며, 한국건축의 완성이자 한국 조각의 백미이다. 그런데 석굴암은 그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인도, 더 나아가 유럽의 문화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문화의 집적(集積)이자 총합(總合)이다. 어느 한 시대 한 문화의 영향이라고 못 박기에는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더욱이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신라적인 시각으로 조화시킨 역량이 돋보인다.

절쳐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바미얀이나 하이바크 등의 아프가니스탄의 석굴사원과 유사하다. 사각형의 전실에 돔 천장을 갖춘 원형의 주실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지붕 아래에 불상을 안치한 감실이 즐비하고 천장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장식한 점도 석굴암을 연상케 한다. 아잔타나 엘로라 같은 중인도 석굴사원의 길쭉한 원형 공간에 비하여 북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석굴사원에서는 둥근 원형의 돔이 등장하는데, 석굴암은 후자에 가깝다. 또한 간다라식의 석굴구조는 그 뿌리를 찾아가자면 실이 북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전실에



◇바미얀 168굴(사진 왼쪽)과 석굴암(오른쪽 위가 단면, 아래가 평면). 돔의 천장을 돔의 패턴으로 장식하고 감실을 열 지어 배열한 방식은 아프가니스탄의 석굴사원과 유사한 방식이다.

돔 천장·감실 배열, 아프간 석굴사원과 유사 印→ 중앙亞→ 中 비단길 거친 역사적 산물

는 세속의 집된 것로부터 불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킴이들이 세 단계로 배치되어 있다. 제1선에는 8부중이 양쪽에 4구씩 나뉘어져 있고, 제2선에는 주실이 들어가는 통로 양옆에 인왕상이 각기 한 구씩 서있다. 그리고 제3선으로 통로 양쪽에는 2구씩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활발같은 지킴이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인 주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석굴암보다 늦은 10세기 투르판에 있는 베제클릭 석굴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조각의 경우는 중국 당나라 조각과 관련이 많다. 둥근 석굴 중심에 불상을 모시고 그 주위 벽에 10대 제자상을 부조로 새긴 방식은 중국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원, 즉 낙양의 용문석굴 가운데 당나라 석굴인 간경종의 제자상들과 닮았다. 또한 심일면관 음보살상은 천태산 석굴에서 나온 당나라 심일면관음보살상(동경박물관 소장)과 비슷하다. 석굴암은 인도의 석굴사원에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온 실�크로드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듬고 조화를 꾀한 신라의 국제적이자 역사적인 산물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佛心同體』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들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형스700
₩4,800,000
→ ₩3,840,000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형스600
₩2,700,000
→ ₩2,160,000

천원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온열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원구로는 국내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동종완화와 혈액개선 효과의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잠자서 시간으로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스페에서 보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심 골 : ₩1,900,000 → ₩1,560,000
- 더 볼 : ₩3,600,000 → ₩2,880,000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헬스라이프 의료기기침대
누워 주무시기만 하면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SAMSUNG 삼성화재)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제로 2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02) 581-6011 ~ 3
공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272